

[TV]

TV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KBS2 최악의 방송사고...비난 쏟아져

14일 밤 송출 장비 고장으로 20분간 중단... 녹장 대처 등 문제점 노출



KBS 2TV가 방송도중 20여 분 동안 화면과 소리가 나오지 않는 최악의 방송 사고를 냈다.

그동안 '위기탈출 넘버원'이 방송되던 중 갑자기 화면과 소리가 중지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1시 11분께 지역별로 대체 영상과 광고를 내보내기는 했으나, 소리가 끊기고 방송 화면이 고르지 않은 상태가 20여 분 가까이 진행됐다.

KBS는 이에 대해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이 잠시 중단되고 있다. 시청자의 양해를 바란다"는 자막을 내보내는 등 방송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렸지만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KBS는 이에 대해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이 잠시 중단되고 있다. 시청자의 양해를 바란다"는 자막을 내보내는 등 방송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렸지만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시청자 이상주(tlvkfwrd) 씨는 "그때 북한에서 KBS에 핵실험을 한 줄 알았다"면서 "양해만 바란다고 자막만 띄우고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 이번 일로 KBS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노유식(sihoh) 씨는 "20여 분의 대형 사고는 요즘 같은 현대화된 비싼 기계를 사용하는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케이블·위성TV 16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케이블 TV 가입신청 및 문의 080-398-3355(전국공통)

Advertisement for 'Living' magazine featuring Kim Hyun-yeong's travel vlog 'My Travel Diary' and a promotion for 'Digital Protection'.



몽고의 자연과 광활한 풍경에 감탄한다.

남편과 함께한 몽고 여행에서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을 느꼈다는 김현영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준다.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

실제 생활을 엿본다. 몽고의 초원을 시인 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거근타라초원에서 김현영의 몽고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오에서 맛보는 몽고 전통음식과 전통 공연. 몽고의 문화에 흠뻑 젖어든 김현영과 함께 몽고에서의 일출을 본다. 또 유목민이 생활하는 집인 게르(파오)를 찾아가